

2021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1. 4. 9. (금요일), 14:00~16: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영운(부위원장), 박전열, 변미혜, 성애순, 원명(김종민), 유정숙,
윤중강, 임재원, 조남규(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공개
---	----------------------------	----

【검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검토	비공개
---	-----------------------	-----

2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보유자 인정조사(1단계) 결과 검토	비공개
---	------------------------------------	-----

3	‘경기시나위’ 신규 종목 지정가치 조사 방안 검토	비공개
---	-----------------------------	-----

4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종목 분리 관련 검토	공개
---	----------------------------	----

5	2021년 종목 지정가치 및 전승자 인정조사 전문가 검토 및 추천	비공개
---	--------------------------------------	-----

심 의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라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 대상 종목인 ‘밀양백중놀이’에 대하여 전승교육사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승교육사 인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 지정일 : 1980. 11. 17.
-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박동영('52년생, 남 / 북·장고, '02.2.5. 인정)
 - 전승교육사(2명) : 이용만('40년생, 남 / 영각, 좌상객, '07.3.12. 인정)
최선희('61년생, 여 / 춤, 악사, '15.11.17. 인정)

2) 추진경과

- 2019년도 전승자 충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19.1월)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추천 요청('19.9월, 우리 청→보존회)
 - 보존회,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조사대상자(11명) 추천('19.11월, 보존회→우리 청)
- 서류 검토 결과 추가 자료 제출 요청('20.3~10월, 우리 청→보존회)
 -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44호, 2020.8.31.) 개정(조사지표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자료 제출 요청
- 조사지표 검토 등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21.3.12.)

-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실시('21.3.31.)

3) 조사개요

- 일 시 : 2021.3.31.(수), 09:00~18:00
- 장 소 : 밀양백중놀이 전승교육관(경남 밀양)
-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자(10명) : 보존회 추천 이수자 10명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에 의거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등 실시

라. 검토의견

- 전승교육조교의 '전승교육사' 명칭 변경 및 권한 강화로 그 역할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에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함(출석 9명, 부결 9명)
 - 국가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전승교육사로서 적격자 없음.

검 토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2.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3. '경기시나위' 신규 종목 지정가치 조사 추진 방안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4.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종목 분리 관련 검토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종목의 지역별 분리 요청에 따라, 2018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4차 회의 의결(‘18.12.14.)에 따른 지역별 전승현황 조사(‘19.9.27.~10.5.)를 실시하고 해당 종목의 분리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와 관련하여 해남 거주 전승자들이 해남군을 통해 「해남강강술래 전승환경 개선 건의서」를 우리 청에 제출(‘18.9.20.)함.
- 이에 대하여 2018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4차 회의 의결(‘18.12.14.)에 따라 지역별 전승현황 조사(‘19.9.27.~10.5.)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강강술래’ 종목의 지역별 분리 여부에 대한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종목 전승현황

- 지정명칭 : 강강술래(’66.2.15. 지정)
- 보유단체 : (사)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보존회(회장: 김종심/’86.11.1 인정)
- 전승자 현황
 - 보유자(4명)
 - 박용순(창, 선소리/’38년생, 여, ’93.8.2. 인정/진도 거주)
 - 김종심(창, 선소리/’46년생, 여, ’00.7.22. 인정/진도 거주)
 - 박종숙(창, 기와밟기/’54년생, 여, ’00.7.22. 인정/진도 거주)
 - 차영순(창, 받음소리/’53년생, 여, ’00.7.22. 인정/해남 거주)
 - 전승교육사(2명)
 - 정순엽(창, 받음소리/’43년생, 여, ’00.7.22. 인정/해남 거주)
 - 김복자(창, 기와밟기, 남생이놀이/’48년생, 여, ’00.7.22. 인정/진도 거주)
 - 이수자(28명/진도 거주 18명, 해남 거주 10명) * 활동 중인 이수자 기준
- 전수교육관 : 진도무형문화재전수관(진도 소재), 우수영강강술래전수관(해남 소재)

2) 주요 요청사항

- 진도와 해남 지역 강강술래 종목 분리 지정
 - 양 지역 강강술래의 차별성 및 전승활동의 독자성을 고려, 종목의 분리 지정 요청

3) 진행경과

- 해남강강술래보존회 별도 설립을 위한 건의서 제출('92)
 - 문화재관리국 회신 : 문화재 1종목에 2개 단체 불인정에 따라 반려
- 해남군, 강강술래 종목 분리 요청('16.8월~) 및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보존회」 전승활동 현황 제출('18.1~2월)
- 강강술래 종목 분리 관련 자문회의 개최('18.6.28.)
- 해남지역 전승자, 강강술래 전승환경 개선 건의서 접수('18.9.20.)
- 강강술래보존회, 강강술래 전승환경 개선 관련 의견 제출('18.11.29.)

<의견서 요약>

해남 지역 전승자(보유자 차영순 등 13인)의 주요 건의 내용	강강술래보존회 의견
○진도와 해남의 강강술래는 지역, 시연 한복, 음악, 가사, 구성 등의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통합 지정·관리되어 다양성이 사라질 위기에 있음.	○ 두 지역 강강술래의 차별성을 인정하며, 진도군(진도읍 동외, 군내면 둔전), 해남군(우수영)에서 각기 다양한 강강술래를 전승해오고 있음. ○ 차별성과 다양성에 대해 서로 존중하며 지역과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서 공연하겠음.
○ 강강술래보존회가 진도에 위치하고 있어, 해남 지역 강강술래 전수교육은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갈등과 불균형이 심화됨.	○ 진도무형문화재전수관과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전수관은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여 전수교육의 큰 불편함이 없고, 전수교육은 출신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지므로 지역갈등이나 불균형의 심화는 없음.
○ 강강술래보존회의 공식행사 시에는 양 지역 전승자들이 함께 공연에 참여하나, 비공식 행사의 경우 진도와 해남이 각각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음.	○ 공식행사 시에는 표준 무대형식의 공연을 하고, 비공식 행사의 경우 각 지역 강강술래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각자 공연에 참여하고 있음.
○ 양 지역 강강술래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하여 진도와 해남의 강강술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강강술래 분리 지정을 요청함.	○ 보존회는 양 지역 강강술래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진도와 해남강강술래를 분리하지 않고 보존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18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종목 분리 관련 검토('18.12.14.)
 - (보류) 해남과 진도 강강술래 종목 분리 여부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재논의함.
- 강강술래 지역별 전승현황 조사 실시('19.9.27.~10.5.) * 세부내용 5) 참조
-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보존회 관계자(진도·해남) 면담('21.2.5.)
 - 면담자 : 무형문화재과장, 강강술래보존회 보유자·전승교육사, 진도 및 해남군청 관계자 등
 - 면담내용 : 관계자 의견 청취 및 종목 분리를 위한 행정 절차 안내, 강강술래 보존회 공식의견 수렴 및 제출 요청 등
- 강강술래보존회, 종목 분리 논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21.3.26.)
 - 이사회 의결내용 : 종목 분리를 주장해 온 해남 거주 회원들이 종목의 보존과 발전의 큰 틀에서 현재의 전승권대로 활동하는 것에 동의함. 단, 해남 거주 보유자(차영순)는 여전히 종목 분리를 희망하고 있음.

5) 강강술래 지역별 전승현황 조사('19.9.27.~10.5.) 결과

- 조사개요
 - 조사대상/일시/장소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장소
진도군 강강술래보존회	'19.9.27. 11:00~14:30	진도군 승전무대
해남군 강강술래보존회	'19.10.5. 11:00~12:30	해남우수영강강술래보존회전수관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보존회	'19.10.5. 13:30~15:00	진도무형문화재전수관

- 조사자 : 관계전문가 2명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및 지역별(진도·해남) 강강술래 연행 실태 조사(영상기록 포함)
 - 지역별 보존회 전승현황 및 종목 분리에 대한 각 보존회 관계자 면담 조사

○ 강강술래 지역별 연행방식 차이

- 놀이 구성의 차이

순서	놀이	진도		해남		국가무형문화재	
		놀이 / 연행시간	놀이 / 연행시간	놀이 / 연행시간	놀이 / 연행시간		
1	중강강술래	○ 2분	○ 2분8초	○ 2분10초			
2	인사	○ 43초	○ 30초	○ 40초			
3	긴강강술래	○ 4분55초	○ 4분	○ 5분			
4	중강강술래	○ 40초	○ 1분20초	○ 40초			
5	자진강강술래	○ 30초	○ 1분20초	○ 30초			
6	남생이놀이	○ 20초	○ 30초	○ 1분20초			
7	개구리타령	○ 50초	X	○ 1분			
8	청어뛰기	○ 56초	○ 44초	○ 1분10초			
9	청어풀기	○ 1분20초	○ 43초	○ 1분10초			
10	고사리꺾기	○ 2분	○ 1분10초	○ 2분			
11	덕석몰기	○ 20초	○ 45초	○ 20초			
12	덕석풀기	○ 50초	○ 30초	○ 1분			
13	손치기, 발차기	○ 40초	X	○ 3분			
14	바늘귀끼기	○ 2분40초	X	○ 3분			
15	발갈기	○ 1분50초	X	○ 2분			
16	가마타기	X	○ 3분40초	X			
17	기와밟기	○ 1분50초	○ 1분45초	○ 2분			
18	문지기놀이	○ 55초	○ 1분	○ 50초			
19	문쥐새끼놀이	○ 1분55초	○ 2분5초	○ 1분10초			
20	인사 및 퇴장	○ 2분50초	○ 3분40초	○ 6분			
총시간		27분	26분	31분			

- 복식의 차이

- 진도군 강강술래보존회 : 흰저고리, 청색치마
- 해남우수영강강술래보존회 : 흰저고리, 청색치마(홀수), 홍색치마(짝수)
- 국가무형문화재 보존회 : 흰저고리, 청색치마

○ 조사자 의견 : 강강술래의 생성이나 전승의 측면에서 보면 지역별 전승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안지역에서 연행되는 뽕뛰기 강강술래나 좌도농악, 우도농악 등의 차이를 참고하면 지역별 전승의 차이가 높다고 볼 수 있음.

라. 검토의견

- 강강술래의 지역별 전승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강술래의 생성이나 전승 측면에서는 지역별 전승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나, 놀이 구성 방식, 복식 등 세부적인 요소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는 조사자의 의견이 있음.
- 한편, 최근 개최된 강강술래보존회 이사회에서 해남 거주 회원들이 종목의 보존과 발전의 큰 틀에서 현재의 전승권대로 활동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단, 해남 거주 보유자(차영순)는 여전히 지역 분리를 희망하고 있음.
- 강강술래 지역별 전승현황 조사결과 및 강강술래보존회 의견 등을 감안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종목 분리 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의결 사항

- 부결함(출석 9명, 부결 9명)
 - 강강술래 지역별 전승현황 조사결과 및 강강술래보존회 의견 등을 감안하여, 현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종목의 전승형태를 유지함.

5. 20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및 전승자 인정조사 관련 전문가 검토 및 추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